

11

성령의 임재하심

오순절의 성령 강림

행 2:1~42

찬송가 172장 (빈 들에 마른 풀같이), 찬양 98장 (내 안에 계시는)

오늘 배울



1.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됨을 압니다.
2.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범사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1~4)



을 이해하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전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있고 열흘 후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약속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때에 사람들 위에 임하신 적은 있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영원히 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훗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줄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 또한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된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시자 제자들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저마다 방언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즉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베드로가 일어나 성령이 충만하여 전도하니 이 날에 삼천 명이나 구원을 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성령께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두루 행하시며 능력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나요?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But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witnesses to Me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Ac 1:8)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오순절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출 34:22, 레 23:15~21).

2

성령 강림이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골 2:28~32, 행 2:1~4).

3

성령 강림과 구원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롬 5:5, 8:16, 고전 2:12, 고후 5:5, 갈 3:2).

4

나는 언제 성령을 받았나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각오를 써 봅시다(롬 8:12~14, 고전 6:19~20).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1

롬 5:5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2

롬 8:16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고전 2:12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고전 6:19

↑

고전 6:20

↑

고후 5:5

↑

갈 3:2



새와 거미의 집짓기

우리는 종종 예술품과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곤 합니다. 이는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의 예술성과 능력에 감동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발견되는 이것에 못지않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요? 많은 동물들이 거처할 집을 짓고 새들은 정교하며 다양한 모양의 둥지를 틀며 곤충들도 거미줄과 먹이를 포획하기 위한 함정들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러한 동물들이 특수한 창조물을 인간과 같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설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본능에 의해 행동할 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동물들의 이러한 행동이 본래 정해진 디자인의 일부분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특수한 설계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새는 산란기에 알을 낳기 위해 여러 종류의 둥지를 만듭니다. 어떤 새는 흙과 짚으로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새가 풀과 낙엽을 엮어 둥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새들이 이런 기술을 얻게 되었을까요? 진화를 통해 저절로 얻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어미들이 집을 짓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일까요? 이 답을 얻기 위해 과학자들은 긴 실험을 했습니다. 새들을 우리에 가두어 키우면서 산란기에 둥지를 지을 수 있는 풀과 낙엽을 주지 않고 그냥 알을 낳아 키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새끼가 커서 어미가 되어 산란할 때도 역시 둥지를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주지 않고 알을 낳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세대를 반복한 후 산란기를 맞이한 새에게 풀과 낙엽을 넣어주자 즉각적으로 같은 모습의 둥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새들이 둥지를 본 적도 없고 그들의 어미가 둥지를 만드는 것을 본 적도 없지만 완전한 집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실은 이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의 둥지를 짓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미들은 새의 둥지와 전혀 다른 집을 짓습니다. 거미들은 비단 같은 가늘고 질긴 물질을 꼬아 특수한 형태의 그물과 같은 집을 짓습니다. 이 물질은 같은 두께의 강철보다 강하고 질긴 물질로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그물에 걸린 곤충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끊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으며 운반하는 바늘의 역할도 합니다. 이 거미들 또한 결코 진화를 통해 비단을 꼬아 집을 짓는 기술을 획득하거나 보고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본능 속에 이런 기술을 주신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곧 하나님의 설계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십니다 (시 104:24)

질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창 22장)과 입다의 딸(삿 11장)을 제물로 바치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묶고 칼로 찌르려는 순간 여호와와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하고 급히 그를 부르시며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 22:12)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이삭으로 자손을 번창케 할 것이라는 약속을 참으로 믿는지 시험하시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지, 결코 이삭을 죽이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물로 이삭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 11:19)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이야기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시면 돌아올 때 누구든지 처음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신 제물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종교에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가증히 여기셨고 또 엄하게 금하셨습니다(신 18:9~10). 하지만 입다는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의 오랜 망명 생활로 생기고 방식 때문이었는지, 쉽게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릴 것을 서원합니다.